

# “한글 보급은 불전 한글화를 통해 이뤄졌다”



〈아미타경언해〉

## 최종석 금강대 교수, 간경도감 의미 재조명

역불승유 정책과 한글경시 풍조가 만연했던 조선 초기, 사대부들의 반대에도 왕실 주도로 불경 한글 번역을 위한 기구가 설치되고 역경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던 그 까닭은 무엇일까?

최종석 금강대 불교복지학 교수는 최근 〈불교경전은 어떻게 전해졌을까〉(불광출판사)에 게재한 논문 ‘한글에 담겨진 불경’에서 1461년 세조의 왕명으로 설치된 간경도감(刊經都監)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주목했다.

간경도감은 조선 초기인 1461년부터 1471년까지 11년 간 존속한 기관으로 불경의 국역과 판각을 관장하던 관립기관이다.

이때 한글로 번역된 불경으로는 〈승업경언해〉 〈법화경언해〉 〈선종영가집언해〉 〈범어언해〉 (금강반야바라밀다경언해) 등이 있어 현재 불교학 연구 뿐만 아니라 우리말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최종석 교수는 간경도감의 설치가 단순히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는 찬탈을 숙죄하기 위해 불교에 심취해 일어난 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세조는 대군 때부터 불교를 좋아해 부왕인 세종의 불서 편찬 및 간인(刊印)을 적극 도왔다. 간경도감의 설치는 선대인 세종의 한글 창제 업적

을 잇고 왕권 정통성을 지지하는 사대부계층을 견제하기 위한 세조의 남다른 시도였던 것이다.

최 교수는 “당시 국시인 유교에 입각한 격렬한 반발로 세종 당시에만 해도 한글 반포에 대한 항소가 끊임없이 때었다”며 “양심적 참회의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유교경전의 한글화를 위한 전조작업으로 한글 보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당시 민간에 깊게 파고든 불교를 활용함이 유용했다.

최 교수는 “불경의 한글번역본 발간 정책은 유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선의 지향점과는 다른 이질적 정책이다. 하지만 먼저 당시 백성이 쓰는 말과 새로 창제된 한글 사이의 간격을 매우기 위해서는 대중화를 위한 실용적 사고도 필요했다. 결과론적이지만 불전의 한글화 사업이 없었다면 한글 배포의 문제가 과연 용이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끝으로 “한글 창제는 기본적으로 애민, 자주, 실용 정신을 대변된다. 세조의 간경도감 설치는 이러한 정신이 유감 없이 발휘된 것으로 향후 지속될 역경 사업은 이런 근본정신에 입각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문화재 17건 보물 지정

13m ‘하동 쌍계사 괘불도’ 등



문화재청은 하동 쌍계사 괘불도(사건) 등 불교문화재 17건을 12월 20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이 2002~2016년까지 추진 중인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의 성과이다. 보물 지정된 문화재 17건은 2008년 경남 서부지역 불교문화재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유형별로는 불상 6건, 괘불도 2건, 동종 4건, 전적 1건 등이다.

불상은 6건으로 보물 제1686호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제 1688호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이 있다. 이들은 17세기 전반 대표적 조각승인 현진 작품으로 불상의 양식변화 뿐만 아니라 17세기 전반 불상 양식 편년을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존하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1612년에 수화승 현진이 4명의 조각승과 조성한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상하가 가름한 타원형인데 비해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편평한 방형으로 바뀌는 등 두 작품비교를 통해 17세기 불상양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괘불도는 2건으로 보물 제1692호 통영 안장사 영산회괘불도와 보물 제 1695호 하동 쌍계사 괘불도이다. 영산회괘불도는 1702년 광음이 수화승을 맡아 2명의 제자와 함께 조성했고, 1934년 계홍이 중수했다. 쌍계사 괘불도는 13m에 이르는 거대한 화폭에 입상의 석가모니 1구만을 묘사해 당당하면서도 괴량감 있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됐다.

동종은 4건으로 보물 제 1698호 진주 삼성암 동종, 보물 제 1700호 거창 고건사 동종 등이다. 고건사 동종은 조선 후기 일반적인 동종과 다르게 명문에 사찰의 연혁, 동종 제작기간, 제작불품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천진영 기자

## 초의 선사 다각도 조명

박동춘 소장, 차문화 연구서 내화



조선 정조 10년(1786) 태어나 15세에 출가 후 해남 대둔사 일지암에서 40여 년간 수행하면서 선사상과 차에 관한 저술에 몰두하여 큰 족적을 남긴 초의 선사. 초의 선사는 당시 침체된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킨 대선

사이자 명맥만 유지해 오던 한국 다도를 중흥시킨 다성(茶星)으로서 지금까지 추앙 받고 있다.

신라 말 유입돼 고려시대까지 왕실과 사찰 중심으로 형성된 차문화는 조선시대 배불정책의 영향으로 쇠퇴일로로 겪게 된다. 초의 선사는 차의 이론을 정립하고

제다법을 복원해 초의차를 완성했다. 또 당시 중국차만을 알고 있던 지식인들에게 한국차의 우수성을 인식시켰다. 선사는 차에 대한 관심과 애호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다산 정약용 선생과 추사 김정희 선생 등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교유를 통해 사상적 교류를 나눴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최근 저술한 〈초의 선사의 차문화 연구〉(일지사)는 초의 선사의 생애, 수행을 비롯해 조선 후기 차문화의 중흥할 수 있던 배경을 상세히 고찰했다. 또한 초의선사가 차의 이론을 연구하

고 직접 차를 만들며 다도를 정립해 초의차를 완성한 모습을 그의 제다법, 탕법, 장다법을 통해 살렸다. 깃다거의 선다전통을 이은 초의차가 누구에게로 계승되었는지 추적해 초의차 계보를 알게 한다.

〈동다송〉, 〈다신전〉, 〈일지암시고〉 등과 유학자들이 초의 선사에게 보낸 간찰, 초의 선사와 교유했던 인사들의 문집을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박동춘 소장본인이 발굴한 초의 선사 유품목록인 〈일지암서책목록〉을 통해 초의 선사가 차문화를 일으킨 총체적인 모습을 알려 준다. 노덕현 기자

# “고귀명수(鼓龜命數: 육임운명판단법)” 할인 출시 및 “효사 활인천역집(曉史活人天役集: 육임종합 CD프로그램)” 리콜 (무료) 실시!

“본회 사이트 첫 화면에 아래 -·=의 ‘활용효과성’을 위한 설명 강의 동영상 올려 놓았습니다”

### 1.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리콜 실시 안내



효사 활인천역집 2011년 완결최종판

1. 정가: 5백만원
2. 기능: 상단전문활용육임종합 CD 프로그램
3. 리콜(무료교환) 대상: 가. 효사활인천역집 2010년완결판 (판단의 애매성이 일부항목에서 불식되지 않음) 나. 효사활인천역집 2010년완결보정판 (판단의 애매성이 일부항목에서 불식되지 않음) 다. 효사육임사주감정법 (대,세,일,윤세,배지,오류,발견,됨)
4. 리콜이유: 가. 승인(인증)기능을 없앴음. 나. 신분 직업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보충 하였음. 다. 초사(初辭)와 내정(來情)의 핵심사에 대한 애매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아래 사항들의 낫, 남, 녀 구분 및 어간(語間)의미를 최정면 시켰음.

12. 12부정(邪崇)중 부정침범부위(신변·가택 등)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13. 산소탈 14부 중 묘지속 상에서의 ‘뱀굴’ 여부 · ‘복굴’ 여부 · ‘수듬’ 등 여부를 재정리 시켰음.
14. 집안에 귀물(鬼物: 木·火·土·金·水)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 했음.
15. 기타에 있어 가) 이 사람이 왜 왔는가? 나) 이 사람의 전체적 상황은 어떠한가? 다) 이 사람의 구체적 문제는 무엇인가? 라) 이 사람의 비밀사안은 어떤 것인가? 마) 묻고자 하는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바) 바깥일인가? 집안 내부 일인가? 사) 밝혀도 되는 일인가? 숨기고 싶은 일인가? 아)上人(男)에게 유리한 일인가? 下人(女)에게 유리한 일인가? 자) 내 말을 신뢰하는가? 설득해야 하는가? 자기 고집이 있는가? 등 위 프로그램에 장착된 15종 600여가지 사안 중 위 큰 항목 1·2·3 세가지와, 작은 항목 1-15 내용을 정련·보강·삭제 시켰으므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5. 위 1항 대상의 기존 “효사활인천역집 1·II·III CD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환 시기가 수차 있었기 때문에 금번 리콜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6. 2010.12.13일 - 12.31일 동안만 할인가 25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 2. 고귀명수(鼓龜命數) 출시

“안녕하십니까?” 중동지절(仲冬之節)에 저 고복자 효사 분안드립니다.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사주(四柱)에 연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메일메일 시간시간의 방문자마다, 이어지는 다음 사람들까지, 또는 출생 연월일시별로, 표시해 놓은 해당 쪽수만 펼치면 거기, 군더더기 하나 없는 속 시원한 내용들이 또박 또박 써져 있을 것입니다.

읽고 해석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인 부동(不動) 단구(單句)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간추려 드리건대 수명 관계 / 건강·질병 관계 / 직업·신분 관계(來情과 命運 겸용) / 배우자 성정·용모 관계 / 명운 관계 / 부부 선후사(先後死) 관계 / 일상 귀인조력·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육친별 상신불구(傷身不具)관계 / 출산자녀 친·구(親·仇)관계 / 매년 나이별(신수)·길흉관계 / 떠벌 현재 상황 관계 / 여자의 명운 관계 / 초·중·말년 12작사귀·12경귀·침범관계 / 신변·가택·초·중·말년 12부정 침범관계 / 산소탈·육친 중 누구에 의한 파가(破家)

또는 흥가(興家) 하겠는가? 관계 / 묘지 속 ‘뱀굴’·‘복굴’·‘수듬’ 관계 / 남녀 혼인기(期)관계 / 전체 인생정체(定體) 관계 / 구체적 인생행로(行路) 관계 / 살인·색정·생사별·사고·사건 관계 / 12궁위(本命·財·兄弟·田宅·子息·奴業·夫婦·病危·遷移·官職·老後福德·相驗) 길흉 관계까지, 육임의 정정인 정확도·신속도·그 효과성에 맞춰 최대한 - 후회없이 - 잘 살펴 놓았다는 점을 주저해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일별할 수 있게 한 일, ‘고귀명수’를 만들어내게 한 소명으로부터 이해하고 이 책의 완성과 함께 제 인생의 완성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운에 있어서 -이 책처럼 딱딱 부러지는 ‘정형화(定形化) 되어있지 못한 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분별된 써 놓아야만 후·백이 가려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한 눈금의 오차가 없어야 할 우리 활인 천역자들의 ‘갯대’ 이면서 ‘칼’ 임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선입금을 받고도 4년을 끈 저의 진의는 바로 이점입니다. 저에 책에 있는 것을 여기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권위있게 먼저 하게 될 말씀들을 애써 기록한 것입니다. 대 만족하실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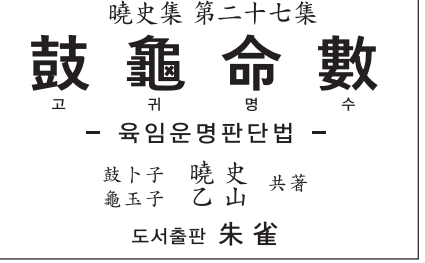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책 값은 3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소식을 접한 분들께서는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기에 2010년 12월 13일 - 12월 31일 사이 동안만 150만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 기존 저의 각 활용서(개정비법시리즈)를 살펴에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70-7514-8680에서 제가 직접 주문 받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庚寅 仲冬 鼓卜子 曉史 拜上



이 ‘고귀명수’의 완성은 ‘육임이 복(卜)일뿐 명(命)에는 약(弱)하다’는 오해를 단 한번에 불식시킨 쾌거로서, 수천년 육임사에 이 책과 같은 ‘명·복 활용서’로까지 만들어진 예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개인의 불행사가 육임

### 고복자(鼓卜子) 저술 소개

진정한 프로를 위한 진검승부적 위상을 제고시킨 육임활용·학습서들입니다. 육임공부를 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 활용서

- 육임개정비법시리즈 최종 2011 완결판
- 효사육임신책(후대용)·효사육임복법집(좌정용)
- 도사에게물어보(2011 중보판)
- 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2011 개정판)
- 육임공수(2011 개정판)
- 육임1년신수비법(2011 개정판)

- 육임개정비법(중보개정판)·후대용 좌정용
- 도정기(道程記) - 신간
- 불가법요집(佛家法要集) - 고혹경원상도 / 해당법문 경구 색인 수록 / 법회의 강동성 고취 구성 / 각종행사 30여 발원·기도문 게재 등 새 지평이 제시됨.
- 육임대계전서(2011 개정판)

- 본 효사활인 천역집(2011년 완결최종판 CD프로그램)
- 본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
- 효사육임강의의 CD(2011년 최신판)
- 오행제례의식집(2011 개정판)
- 효사육임복법집부록(2011 개정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2011 개정판)

#### 학습서

- 효사육임강론(曉史六壬講論) 2011 보정완결판 / - 상권: 육임각법종합구성 / 2050쪽(학술용)
- 하권: 육임사역대저지 머리글 / 육임대요문답 / 사과상진보기요령/형목별주요신징지시 / 사과상진표 / 천지반표 / 과 / 격 / 초사 / 국수해설 / 형목별성부정정 수록 / 2015쪽(임상용)

육임강의 ‘도술(방법실기)반’ 2011년 1월 8일 오후 3시에 개강 합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070-7514-8680

서울 중로구 관훈동 198-16 6층 603호 (조계사 건너편 SK건설 옆 건물) www.taotemple.net